



창세기 18:1~15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새 382 B^a→A)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 A)

Focus |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도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HAM(Heart of Africa Mission)과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의 설립자인 C. T. 스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요. 담요를 들쳐 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었소.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 주던 바로 그놈이더군요.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스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 지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도록 밤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기성, 『우리 서로 사랑하자』(두란노)
오늘도 여전히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나요?

말씀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18:1~15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땅과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삭이 탄생하기 1년 전, 곧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에 구원과 심판의 이중 구조가 나타납니다. 18장에는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 가시는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며, 19장에는 죄악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는 불의 심판이 대조적으로 이어 집니다.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성육신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이어 집니다. 이삭의 탄생 예언에 웃음으로 반응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내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웃음은 앞서 할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후손 약속에 아브라함이 웃음으로 반응한 일(17:17)과 연결되면서, 이삭의 탄생을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 증거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증거합니다(사 55:11).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보이는 이들을 어떻게 대접했나요?(1~8절)

그들을 보자 곧 달려 나가 영접하며 경배하고, 발을 씻기고 급히 음식을 요리해 정성을 다해 접대했습니다.

해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증거합니다(히 13:2).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본 것은 ‘오정 즈음’이었습니다. 오정은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오전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앉아 졸던 중에 세 사람을 본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눈을 들어 본즉’ 다음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있는데, 이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고 당황하거나 놀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렬결에 발견한 나그네들이 누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달려 나가서는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상당한 부자에 한 가문의 족장이었던 자신을 ‘중’(5절)으로 낮추며 자기 집에서 쉬어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본문에는 최선을 다해 나그네를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급히, 속히’(6절)와 ‘달려가서, 급히’(7절)는 나그네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열정적인 섬김을, ‘고운 가루’(6절)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7절)는 귀한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밀가루 약 22리터에 해당하는 ‘세 스아’(7절)는 세 사람이 먹기에는 매우 많은 분량인 만큼 풍성한 섬김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지극한 환대와 겸손으로 부지중에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적용과 나눔 “나그네를 사랑하라”(신 10:19)라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도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 나갔고, 모두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도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 ‘달려’ 나갔고, 모두가 쉬는 ‘정오’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나

갈 수 있는 열정과 가장 귀한 것으로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종이라 부르며 나그네들의 발을 씻었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태도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부지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마 25:40).

관찰과 묵상 2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자, 장막 문에서 이를 듣고 있던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10~12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라며 믿지 못했습니다.

해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이며(9절),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10절). 하나님은 내년 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그러나 이미 경수가 끊어진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문 뒤에서 듣고 있던 것과 그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당신의 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14절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입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평범한 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처지인 사라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 거듭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히 방문하셔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시며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며, 그 약속에 웃음을 보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적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적용과 나눔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소망을 얻은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예고하실 때, 장막 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은 모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처지만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조물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가 대망하는 구원도 능히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십자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셨고, 결국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나그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생면부지 나그네를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 섬김에 답하기라도 하시듯 하나님은 1년 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할 때 우리는 부지중에 주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그네와 작은 자를 섬기며 살 때 주님께 칭찬받고, 살아 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하나님 사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겸손한 성도가 되도록
-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앞장서길 원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북한이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며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민생 안정과 평화 도모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2. 동성애 또는 동성 부부 설정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가 돌이켜 주님의 인도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 18:14



창세기 21:1~7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새 545, A*~G)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경배와 찬양 G)

Focus |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분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나는 원래 바보 소년이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읽은 책이 하나도 없었다. 큰형과 작은형은 IQ가 뛰어난 천재들이었지만 나는 세 자릿수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러던 내가 중3 올라가던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서 “반년 만에 읽어라.” 하시는데, 조건부로 성경을 주셨나 보다 싶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한두 시간씩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난생처음으로 책 한 권을 완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성경이 재미있었던 것은 열등한 내게 성경은 축복의 보고였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실로 엄청난 약속을 남발하셨음을 알았다. 나는 그중에 아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들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제일 못하는 수학의 정석 곱셈에 이 말씀을 적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당당하게 지혜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기적같이 문제들을 이해시켜 주셨다. 나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보냈고 대학 문턱에도 가기 어렵던 내가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그것도 책 읽는 영문과에 들어갔다. 게다가 4년 장학생에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녀왔고,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번역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 이상준,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두란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21:1~7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21~22장은 이삭의 출생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회생 제물로 드리는 사건까지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부터 대략 25년 후까지 일어난 사건

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인 이삭의 출생은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대하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한 이삭의 탄생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과 연결되며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합니다. 이삭의 탄생 기사인 1~7절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그분의 돌보심과 행하심으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으나 결국 이삭을 낳고 하나님으로 인해 참웃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출생은 모든 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뤄진 사건으로, 그분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일한 영적 의미로 연결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성경은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묘사하나요? (1~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묘사합니다.

해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에 걸쳐 언약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12:2; 15:4~5; 17:16~21; 18:14). 본문은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신 이름입니다(15:1).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1절의 ‘돌보시다’와 ‘행하시다’는 언약을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돌보다’는 구약에 285회 등장하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나타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자를 방문하셔서 돌보셨고(18:24), 1년 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2절). 사자를 통한 언약의 후손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 백성의 삶과 죽음이 그분의 주권적인 손에 온전히 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2절의 ‘시기가 되어’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는 표현입니다. 그 시기는 ‘언약을 성취할 때’를 의미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역사할 때를 가리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시고 신실하실 뿐 아니라 유한한 인간과 달리 무한하시고 전능

하셔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켜 '늙어서 죽은 자와 같은 자라고 증거했습니다(히 11:12).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은 나이 들어 경수가 끊어진 사라로 하여금 출산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신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이미 성취되었거나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제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도는 그 아름다운 때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2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가장 먼저 했나요?(4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해설 아브람은 99세에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으로 이름을 바꾸고 가문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의적 표징입니다(17:11).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며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란 남성 성기의 귀두를 덮고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으로, 본래 중근동 지방에서 널리 시행되던 풍습입니다. 보통 아기들은 태어난 지 '제8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8일'의 영적 의미는 산모의 부정한 기간인 7일이 지난 첫째 날이며, 한 주간이 지난 후 옛것을 벗어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K와 프로트롬빈이 가장 활성화되는 생후 8일 이후를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시기로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오늘날 성도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를 마음에 행함으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행할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일까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더럽고 죄악 가득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물론 죄인이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딤후 3:5). 그러므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엡 6:18). 오직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참백성이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어 삶에 변화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무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엡 5:18).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인격적으로 돌보시며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가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며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이 더디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거룩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에서 천국의 웃음을 누릴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는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도록
-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소서. 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과 감사로 반응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정부가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살 문제의 해법을 찾도록 기도합니다.
2. 쿠테타로 혼란기에 처한 부르키나파소에서 성도들이 이슬람교도 등 비기독교인을 섬기며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창세기 24:1~9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기

나는 갈 길 모르니 (새 375, AB→A)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길을 때 (경배와 찬양 C→A)

Focus |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빨라야 좋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인터넷도 핸드폰도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빨리 나와야 손님이 좋아합니다. 얼마 전 동네에 '시엘로'라는 이름의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커피숍은 문을 열자마자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리 주문하고 가서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마시는 커피라서 천국 커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일까요? 빨리 가는 것이 꼭 좋은 것일까요? 너무 빨리 달려서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성취했다고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주한 우리 앞에 가끔 장애물을 두어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삶이 멈춰 섰다면 신앙이 바른지 점검해 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멈춤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 박성근, 「어둠 속을 걸어가느 용기」(두란노)

나의 인생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장애물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24:1~9를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불러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의 고향 친족 중에 택하라고 지시합니다(1~4절). 부패한 가나안 족속 출신의 며느리를 얻을 경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더럽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삭 또한 부패한 아내의 영향을 받아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반복해 당부합니다(6, 8절).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기에 마땅히 약속의 땅(가나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결혼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약속 없는 자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에게 맹세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최고 중대사인 결혼을 위한 일이라 해도 이삭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더디 성취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어디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했나요?(2~4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설 본문의 배경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노쇠함으로 인해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삭의 결혼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룹니다. 그의 신중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고향 친척 중에서 고르게 한 것(4절)과 이를 철저히 수행할 충성스러운 노복과 환도백 맹세를 한 점(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2절의 '늙은 종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종보다 관록이 붙은 종'이라는 뜻으로,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의 수장'(the chief servant, NIV)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청지기 제도에 따르면 늙은 종(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과 집안 모든 일을 관할하는 권한을 가진 신뢰할 만한 종이었습니다. 늙은 종이 맹세하기 위해 손을 넣은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은 엉덩이와 연결된 넓적다리(남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방식으로, 불복종 시 자수를 받게 된다는 경고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들의 혼사 문제를 두고 종에게 신중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받은 것입니다.

적용과 나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뜻을 신중하게 구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가나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가나안 족속은 매우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문란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금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신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통해 그들의 우

상 숭배 습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명예를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고후 6:14). 성도들은 친구나 동역자들을 만나기 전에 모든 관계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직장을 선택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간구할 때 앞서서 길을 비춰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관찰과 묵상 2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라고 종에게 당부했나요?(5~8절)

아브라함은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반복해서 당부했습니다.

해설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 곧 아내 될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이삭의 아내 될 여인도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상징하며, 언약의 자녀 이삭은 참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이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맞이하려는 자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떠나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7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 70여 년 세월을 통해 경험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을 사자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시 23:3).

적용과 나눔 예전 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의 길을 갈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요 언약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갈 3:14)라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보충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된 우리는 때때로 죄악의 본성이 옛 자아와 사망의 길로 이끌 때 주저하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고(롬 8:2),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대적해야 합니다(빌 2:10).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는 길 앞에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히 나아갈

때 천사들을 보내 지켜 주신다는 시편의 노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 91:11).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과 그 집안의 모든 행사에 앞서서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맹세에는 아브라함의 자녀와 가족 모두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앙의 대를 이어 가게 하겠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처럼 신중하게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계획과 판단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악한 길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도록
-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와 사망의 습관들을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정진하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인생 여정에서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본성을 이기고 매 순간 거룩함을 선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크리스천 청년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경적 리더십을 갖추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지혜, 정직과 성숙함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2.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성경 내용을 바꾸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며 체제 유지 도구로 사용하려는 악한 계획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아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창 24:4



창세기 25:19~34

장자권에 대한 태도

하나님 찬양하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546, D) 나 무엇과도 주님을 (경배와 찬양, D)

Focus | 믿음의 사람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우리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황당한 행동을 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처구니'는 뱀들의 손잡이를 뜻합니다. 두 개의 둥글고 넓적한 뱀들을 맞물려 돌려야 하는데 위에 손잡이가 없으면 그 뱀들은 쓸 수 없습니다. 제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해도 손잡이가 없는 뱀들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간혹 누군가가 뱀들의 손잡이를 빼서 다른 곳에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뱀들을 사용해야 할 때, 그 뱀들은 모양만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어처구니라는 손잡이가 없는 뱀들은 한낱 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당연히 있다고 여기는 어처구니가 있을 겁니다. 건강을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연약한 이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 이 깨진 이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 것이 새삼 감사로 여겨졌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창세기 25:19~34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2~25장에는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2대 족장으로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이삭의 생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인 야곱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아들이 갖는 책임과 특권입니다. 만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집안의 대표자로서 통솔권을 지닙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때도 다른 형제들의 두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수행하며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혈통적 계보를 통해 이어지던 장자권을 여기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육적인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통해서 이어짐을 보여 줍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간교한 수단과 방법을 썼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습니다. 모든 역사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리브가가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일로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22~23절)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에 두 국민이 있는데, 장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역사를 보여 줍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들을 잉태케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자라”(창 12:2)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의 태에서 두 아이가 싸울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23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노예의 신분’이다. ‘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큰 자가 작은 자를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노예와 같이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를 정하시고 언약 백성의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택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적용과 나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확신하게 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교회 장로님 중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Not me, but God’s grace.”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을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의 실수를 숨김 없이 기록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고, 노아의 실수를 기록하며, 다윗의 실수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계획이 저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Not me, but God’s grace.’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전 15:10)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2 몹시 허기졌던 에서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요구하는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했나요?(29~34절)

몹시 허기졌던 에서는 야곱이 쉰 죽을 먹기 위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야곱에게 팔기로 맹세했습니다.

해설 만아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장자권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장자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정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과 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영적 복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에서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순간적인 육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영원한 유업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된 자’(히 12:16)로 평가하며,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예로 언급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란 말에서 유래합니다(26절). 즉 야곱은 장자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차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에게 이어지기에 야곱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형 에서로부터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았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자격 없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천지 만물과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딤후 4:4)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에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여긴 에서는 결국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깁니다. 한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야곱은 비록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그러나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사건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을 잘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혈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족, 소소한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 다지기

어머니 태에서 시작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은 결국 장자권 쟁탈에 이릅니다.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히 12:16)라고 평가하며,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의 예로 언급합니다.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사모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를 소중히 여기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내게 맡겨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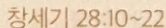
함께 기도하기

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약 8%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어렵게 하는 치매의 치료 제 개발과 이들 삶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종교 교육이 허용된 탄자니아는 인구의 약 63%가 24세 미만 세대입니다. 이들을 양육할 주님의 일꾼과 선 교사가 많이 파송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 25:33



하나님 찬양하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새 546, Bb→A) 예수우리 왕이여 (경배와 찬양, A)

Focus |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문을 여세요.

인도자를 위한 예화 네 명의 딸과 늦둥이 막내아들을 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우리나라 정서에 따라 아들을 낳기 원했는데 결혼 후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빗재도 딸을 낳자 남편이 실망해서 며칠간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당황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서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빗재 아이를 안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아이를 온전히 드리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아이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섯 자녀 중 하나님께 드린 막내딸 에스더를 위해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딸은 신학교를 나와 선교사가 되었고,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Way Maker라는 NGO 단체를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믿음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장학 지원을 하는 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주신 에스더라는 이름처럼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원한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걸어 본 길이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본문 읽기 창세기 28:10~2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간교한 계획에 동참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로 인해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할 만큼 분노하고, 야곱은 형을 피해 가나안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베엘에서 야곱을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베엘의 체험이 필요했습니다. 태중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택하심이 확증되어야 했습니다. 베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3대 조장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확

인해 주시는 일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루스'로 불렸습니다(19절). 오늘날 예루살렘 북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베이트'이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12:7~9; 13:3~4). 아람은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꿈을 꾸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베고자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묵상 **1** 야곱이 하란으로 향하던 중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잘 때 꿈에서 본 환상은 무엇이 었나요?(12~15절)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리락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야곱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해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일 때문에 방황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품을 떠나 타지를 여기저기 떠도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을 단련하시고 그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야곱은 뻔뻔한 곳에서 잠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임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13~15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것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받은 것을 인정하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그네 같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에 대한 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확신하나요? 힘들 때마다 내가 붙드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인생 여정 중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께하고, 지키고, 돌아오게 하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라”(사 41:10),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라”(사 41:10),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라”(사 41:10)

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해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십니다.

관찰과 묵상 2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베게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은 무엇인가요?(20~22절)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해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황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하란을 향해 급히 떠난 길은 약 800km에 달하는 멀고도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야곱은 해가 지자 벌판에 돌을 베고 누워 잠듭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벌판에서 지내던 야곱은 편안했던 장막 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 야곱은 그곳을 베엘이라고 부릅니다. 베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을 지켜 주실 것과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이것은 조부였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일조를 바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야곱은 자신이 서원한 대로 이곳에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엘 베엘’이라고 부릅니다(창 35:7).

적용과 나눔 인생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서원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적용과 나눔 포인트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은 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피 생활을 하며 벌판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로써 그곳은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두려움은 평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엘’이라 부르고 서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그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드린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열매였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라는 말씀처럼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말씀 다지기

야곱은 속임수와 계략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엘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디서든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TIP 리더는 오늘 나눈 말씀이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인도합니다. 아래 기도 제목을 1개 혹은 2개 모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일터, 삶에서 거룩한 예배의 제단을 쌓도록

TIP 이렇게 구성원들과 한목소리로 기도한 후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따라 읽으며 마무리하고, 중보기도(함께 기도하기)로 들어갑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주님,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한국 교회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좇아 행함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합니다.
2. 불가리아는 지도자들의 부패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생명의 삶』 177쪽 ‘망글에서 온 편지’ 참조).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마음에 새기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 너를 지키며 너를 아꼈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창 28:15